



[뉴스]
집에서 랜선 사라진다
KT '기가와이' 첫 선
02



Economy

코스피 2126.73 (-14.59)	코스닥 751.64 (+9.61)
금리 (미국 3년) 0.846 (+0.002)	환율 (원/달러) 1215.80 (+6.20)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왼쪽)과 LG그룹 구광모 대표가 22일 LG화학 오창공장 본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대차

구광모 찾은 정의선 전기차 핵심 배터리 협력

LG화학 오창공장서 만나
장수명 배터리 등 기술 공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으며 전기차 기술 경쟁에 속도를 높인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22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났다.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이날 LG그룹 경영진들과 전기차용 배터리 부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 기획조정실 김길 사장, 상품담당 서보신 사장, 현대모비스 박정국 사장 등은 이날 LG화학 오창공장을 방문했으며, (주)LG 구광모 대표와 권영수 부회장,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 전지사업본부장 김종현 사장, 배터리연구소장 김명환 사장 등이 현대차그룹 경영진을

맞았다.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LG화학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장수명(Long-Life)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배터리의 기술과 개발 방향성을 공유했다.

양 그룹 경영진은 미래 배터리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오창공장의 배터리 생산 라인과 선행 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기아차가 생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와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에 LG화학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양산 예정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의 2차 배터리 공급사로 LG화학을 선정하고 최상의 성능 확보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캠코, 자산매입 프로그램 가동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1호 매입되나

서울시의 공영화 계획으로 자산 확충에 차질을 빚던 대한항공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지 매입을 통해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기업의 자산 매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첫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시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함께, 세부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달 자산매입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을 의결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캠코채 발행으로 2조원의 재원이 마련되게 됐다.

캠코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그에 따른 '매입 1호'로 주목받고 있는 자산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다. 최근 들어 서울시의 '공영화 계획'에 따른 입장차를 두고, 대한항공이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 확충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서울 중로구 송현동 소재 부지 등을 매각해 내년 말까지 2조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산업은행 등 재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며, 당시 맺은 특별 약정에 이 같은 자본 확충 계획안을 포함한 바 있다.

(3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JY수사' 창과 방패의 대결 검찰수사심의위에 쏠린 눈

26일 공소제기 여부 논의

경영승계 불법행위 인지 여부
검찰 관련증거 확보 등 관건
구속 땀 삼성 총수공백 우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의 기일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부회장을 향한 무분별한 수사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현안 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 공소제기 여부 심의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이유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과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며 심의기일에는 각 분야 인사 150~250명으로 이뤄진 위원들 중 선발 인원이 최소 10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심의에서는 현안위원들이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에서 제출 받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인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도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현안 위원 질문을 받거나 전문가 의견도 청할 전망이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검찰이 이와 관련한 증거를 얼마

나 확보했는지다.

검찰은 '프로젝트G'로 알려진 문건을 증거로 기소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G는 이 부회장 승계 작업과 관련해 작성된 내부 문건으로, 삼성SDS와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와 관련해 사업 내용을 보고받거나 수정하고 재검토한 내용까지 포함한 관계자 등 증인 등 증거를 내세우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법원도 이 부회장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검찰의 이같은 물증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아울러 1년 7개월간 장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으로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구속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의 의도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분석한 바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신선식품도 온라인으로... 풀필먼트, 이제 필수

(물류·배송 전 과정 처리 시스템)

푸드테크 기획 | 코로나, 밥상 문화를 바꾸다

<中> '풀필먼트' 시대를 준비하라

온라인 장보는 50~60대도 늘어
업계, 첨단 물류센터 확대 집중
직접·당일배송 서비스 등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장보기가 생활화되면서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는 '풀필먼트(fulfillment)'와 '신선식품'이다.

풀필먼트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입고와 재고관리, 분류, 배송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불과 몇해 전만해도 신선식품만큼은 직접 보고 구매하려는 이들이 많았지만, 유례없이 외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는 크게 늘었다.

◆중장년층도 온라인 장보기 진입
마켓컬리에 따르면 올 2~5월 40대 이상 회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회원이 153%, 50대가 141% 늘어나는 등



쿠팡 프레시 센터 /쿠팡

오프라인 쇼핑을 주로 하던 연령층이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 진입했다. 주문 금액으로 보면 60대 이상은 전년 대비 166% 증가했으며 50대는 116%, 40대는 115%를 기록했다.

마켓컬리 송철욱 커뮤니케이션실장은 "단순히 생필품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식자재를 구입하는 등 온라인 장보기에 나서는 중장년층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풀필먼트로 재도약!

물류와 배송 전 과정을 처리하는 '풀필먼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았다.

이마트는 경기도 용인과 김포에 위치한 3곳의 첨단 물류센터 '네오(NEO)'와 함께 서울-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전국 158개 점포 중 100여 곳의 점포에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점포 풀필먼트센터를 통해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 배송강화 집중하고 있다.

특히 롯데는 최근 온라인 통합플랫폼 '롯데온' 론칭과 함께 물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가 약 3000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충북 진천 롯데글로벌로지스택배 메가 허브 터미널은 2022년 완공되면 원스톱 물류를 통해 하루 150만 박스를 처리하게 된다. 또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배송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바로배송' 서비스를 지난 4월 개시한 롯데마트 중계점과 광고점은 약 한 달간 온라인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0.8%, 175.6% 증가했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